

전주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책을 바람에 쐬는것)

시,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키로... 문화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콘텐츠 될 듯

조선왕조실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책을 말려 습기를 제거해 충해를 막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가 지난 23일 경계전 내 전주사고(全州史庫)에서 열렸다.

조선왕조실록 포쇄재현행사는 실록의 습기를 제거해 충해 피해를 막음으로써 실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조선왕조 의례로 지난 2013년에 처음 재현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조선시대 기록문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된다.

2번째 조선왕조실록 포쇄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에 대한 전주부문의 영접례로 포쇄 재현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사관 일행이 사배를 한 뒤 사고 문을 열어 실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봉심을 한다. 이어 실록 께를 사고에서 꺼내 개봉하고 실록을 한 장씩 넘기며 바람과 햇볕을 쐬는 과정을 거친다.

바람을 쐬인 실록은 께에 붉은 보자기로 감고 방습과 방충을 위한 천공·창포 가루를 넣는 등의 봉과 의식을 거쳐 봉안된다. 봉과 후 사관은 포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은 포쇄형지안을 작성하고 이어 실록 께를 사고에 넣고 봉안하면 포쇄 재현행사를 마치게 된다.

시는 단순한 재현행사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포쇄 전 과정에 전문가의 설명과 포쇄 관련 창작 판소리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주한 뉴질랜드 대사 전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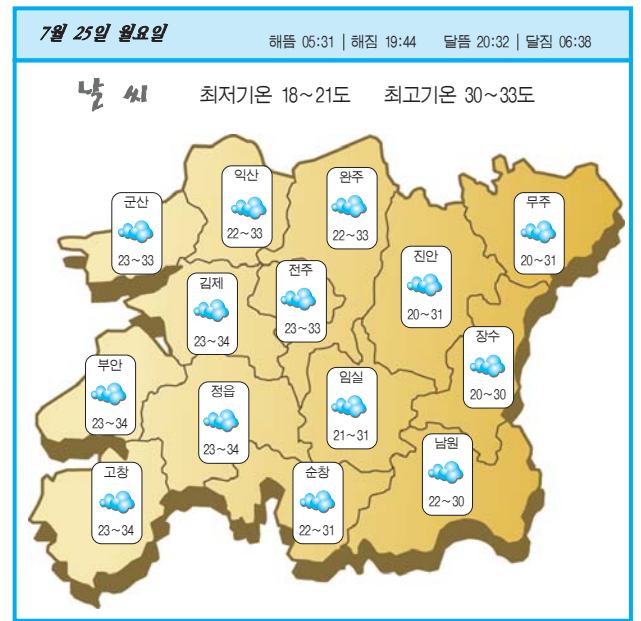
지난 22일 클레어 퍼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일행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첫 공식방문으로, 퍼리 대사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관계자들은 김승수 전주지사를 예방하고 문화와 관광, 축제 등 교류가능 분야를 청취했다.

가미할 예정이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김영목관이나 한글교전소설 등 완판본이라는 책을 찍어낸 출판의 도시"라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전주가 문화특별시로서 자리 잡

아 가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 포쇄(曝)는 책이 습기와 해충에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봄이나 가을의 맑은 날을 택해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리는

실록 포쇄를 3년 혹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포쇄는 한양에서 사관(史官)이 파견되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됐는데, 실록 포쇄 형지안에는 누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등 절차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글로벌브릿지 사업단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가 다문화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벌브릿지 사업단(단장 안병준)은 23일부터 2016년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 했다.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대학생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직접 지도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고 역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초등부 21명과 중등부 20명 등 모두 41명이다. 전북대는 23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80차에 걸쳐 과학과 수학,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 생활관에 합숙하며 물리, 화학, 생

물, 지구과학, 수학 등의 실험·실습을 비롯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과학 실험, 드론 수업, 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 및 대학원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지적 성장과 동시에 정서적 교류도 꾸준히 진행된다.

안병준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지난 4년간 많은 수료생에게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꿈을 키워나가는 데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해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며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력과 실험·실습

여건을 제공해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 창의적인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 사회적 경제 · 소식지 분야 정책, 전국 모범사례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소식지 분야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등극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된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와 소식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두 분야에 걸쳐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 단위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성남시 등 단 두 곳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한 300여개의 응모작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64개 정책이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주민참여 △소식지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 전주시가 응모한 분야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소식지 분야 2개로, 두 분야 모두 최고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되면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사람 중심의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했다.

시는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로 사람의 도시 구현'을 주제로 참가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생태

계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했으며, 사회적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조례 3개를 제정 했다.

또한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 설치 △전주형 온두레공동체 육성 및 지원 △제1회 행복의 경제학 성공적 개최,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시민의 참여, 시민의 언어로 말하고 소통하는 시정 소식지 전 주다움'을 주제로 참가한 소식지 분야

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 속에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정 소식지 전 주다움은 민선 6기 들어 개편을 통해 시민이 만든 작품을 표지로 선정하고, 표지의 주인공을 시민으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위해 시민기자단 운영, 설문조사와 시민의 목소리를 지면 상설화하는 등 참여를 확대 강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01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상권별 특화사업 발굴·추진'으로 청년일자리 마련 및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을 주제로 일자리 분야에 참가,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부를 통해 청년일자리 발굴한 사례를 발표해 일자리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기업 창조경제투자패레이드 1·3등 수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기업 2개 업체가 2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창조경제투자패레이드에서 1등과 3등을 수상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기업 모두 2016년 원광대 창업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이다.

'국내산 쌀을 활용한 테이크아웃 즉식 컵 죽'을 창업아이템으로 제시

한 주식회사 푸르름(대표 정삼옥)이 1등을 수상했고, '기계식 소형 포터블 스티로폼 감용기'를 발표한 주식회사 엘케이산업(대표 김광훈)이 3등을 수상했다.

김도중 총장은 "2016년 창업아이템사업자에 선정된 기업들이 전자협약을 맺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창업기업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